

납부불성실가산세 인하여 제출자료 간소화 등

납세 더욱 편리해진다

연 10.95%의 세율로 부과되던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9.13%까지 낮아진다. 납세자료 요구 절차가 개선되고 각종 신청 기한이 늘어나는 등 납세편의성도 제고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8~29일)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에 1일당 0.03%씩 부과하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0.02%로 인하하기로 했다. 연이율로 따지면 10.95%에서 9.13%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연 6~8% 수준인 시중 연체금리를 반영해 이차점 조정했다.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요구 절차는 개선된다. 12종에 이르던 제출대상 자료가 10종으로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 보고서 및 영업보고서, 연간보고서'

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외 특수관계자의 영업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특수관계자 간 관련 조지도 및 사무분장표'와 '감사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는 제출 의무가 사라졌다.

소득금액 계산 특례신청 기한도 늘어난다.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기간이 상호협의를 거쳐 종료 시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현행)에서 3개월 이내로 1개월 연장된다. 정상가격 일반적 사전승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현행)에서 3개월 이내로 바뀐다.

30일이었던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 기간 또한 60일로 연장됐다. 다만 사전심사 기간은 이전과 같은 30일이다.

한편 각종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이 확대된다. 전기모터바이의 경우 혜택 적용 대상을 '정격출력 1kW 이하(현행)에서 '12kW 이하'까지 늘리기로 했다. 골프장 입장 시 부과하던 개소세 면제 혜택도 '경기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선수 중 30% 이내에 입상한 사람(현행)에서 '선수 등록한 모든 학생선수'에까지 확대 부여한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종류에 과실주도 추가된다. 앞으로는 과실주도 탁주·약주·정주와 같은 소규모주류제조장 시설기준(담금·저장조 1~5kl)을 적용받게 된다.

중소기업 맥주 제조자의 유통경로도 다양해진다. 모든 주류를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구입해 판매하게 하는 '종합주류도매업'에 한정했던 중소기업 맥주 제조자의 맥주 유통을 '특정주류도매업(탁주·약주·정주·정통주·소규모 맥주를 제조자로부터 구입해 판매하는 업)

까지 확대 적용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10.95%서 9.13%로 ↓

소득금액 계산 특례신청 기한 연장되고

2개월 이내(현행)에서 3개월 이내로 1개월 연장된다. 정상가격 일반적 사전승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현행)에서 3개월 이내로 바뀐다.

30일이었던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 기간 또한 60일로 연장됐다. 다만 사전심사 기간은 이전과 같은 30일이다.

생명보험 가입자 사망원인 1위 '암'...자살 '3위'로 상승

보험최초 가입연령 42.4세...10년간 7.1세 증가

최근 10년 생명보험 가입자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 차지했다. 자살은 5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6일 보험개발원이 최근 10년 생명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생명보험 가입자 10만명 당 57.3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10년 전 2007년(75.9명)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2017년 생명보험 가입자 중 심장질환 사망자는 13.4명으로 10년 전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주목할 점은 2007년 5위(8.3명)였던 자살이 3위(10.2

명)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률(5.6명)보다 높다. 자살자수 증가는 경제지표 악화 여파로 풀이된다. 자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지난 2008년 8.6명에서 2011년 13.2명으로 늘었다.

폐렴 사망자도 점진적인 증가세다. 2007년 사망 원인 7위였던 폐렴은 지난 2017년엔 10만명 당 5.7명이 사망하는 등 5위에 올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폐렴은 폐렴구균 등 미생물 감염으로 폐에 염

증이 생기는 것으로 고령자에게 더 치명적"이라며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폐렴으로 사망한 이들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행히 보험가입자의 사망률 자체는 낮아지는 추세다.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산출한 사망률은 최근 10년 연평균 3.7% 감소했다. 지난 2007년 10만명당 사망자수는 197.4명에서 10년 뒤인 2017년 134.8명으로 줄었다.

보험가입자의 평균 사망시기도 늦춰지는 추세다. 사망시 평균 연령은 지난 2007년 51.3세에서 2017년 58.8세로 10년간 7.5세 증가했다.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는 평균 연령은 최근 10년 7.1세 늘었다. 지난 2007년 35.3세에서 지난 2017년 42.4세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국민 평균 연령 증가폭 4.7세(36.0~40.7세)보다 큰폭이다.

보험가입자 연령대는 양극화가 심해졌다. 40대 이상 가입자는 늘어난 반면 30대 미만에선 줄었다.

보험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0세 이상 비율은 10년 전 대비 4.3%포인트, 40~50대는 3.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20~30대는 5.2%포인트, 20세 미만은 2.6%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고용률 '증가세'...20대만 회복 못해

산업연구원 '최근 연령대별 인구 변동과 산업별 고용 변화 보고서'

최근 20대 고용률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연령층에 선 상승세를 보이며 금융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산업연구원이 6일 발표한 '최근 연령대별 인구의 변동과 산업별 고용 변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금융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반면 타 연령대의 고용률은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17년까지 점차 회복세를 보여왔다.

30대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2009년 71.4%에 그쳤던 고용률은 2017년 75.3%로 3.9%p 올랐다. 지난해 들어서도 10월까지 평

균 고용률이 75.7%로 1년 전보다 0.4%p 올랐다. 다만 이는 취업자 증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생산 선 상승세를 보이며 금융위기 수준을 회복한 것과 대조적이다.

40대 고용률은 30대보다 상승 폭이 크지 않다. 2015년 79.1% 수준이던 것이 2017년 79.4%로 올랐다. 다만 지난해 10월까지 40대 고용률은 1년 전 대비 0.4%p 하락했다. 이는 취업자 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에서의 최근 고용 부진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50대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했다. 2009년 당시 70.2%를 나타낸 후 2017년 75.3%까지

상승했다. 60대 고용률의 상승 속도는 더욱 빠르다. 60~64세 연령대는 지난해 고용률이 60%에 육박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20대 고용률보다도 높다. 고령층 인구 증가와 함께 건강 상태가 개선돼 취업이 늘어난 덕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주영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와 함께 '에코세대(1979년부터 1992년 사이 태어난 20~30대 계층, 베이비붐세대의 자녀 세대)'의 20대 진입이 청년 고용률 성적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실패하면 장기적으로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경제 성장 저하 및 복지 부담 가중으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전남학숙 올해 신규 입학생 146명 모집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은 전남학숙의 2019년 신규 입학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146명(남 102·여 44명)이다. 공고일인 7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남에 있고 공주나 인접 시군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원)생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전남학숙 학생센터(061-370-6200)로 우편, 팩스 이메일로 하면 된다.

대학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신입생이나 2019년 1학기에 복학할 예정인 휴학생도 이번에 접수하면 2월 말부터 전남학숙을 이용할 수 있다.

신입생은 건강보험 기준으로 생활정도만 100% 평가하며, 재학생은 성적 30%, 생활정도 70%를 반영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가점 혜택이 있다.

입사 대상자는 2월 7일 전남학숙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2019년 한 해 동안 군 임대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예비자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입사하게 된다.

자세한 정보는 전남학숙 누리집 공지사항에 '2019년도 신규 입학생 선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전남학숙은 1999년 화성에서 개관, 총 312명의 지역 대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월 11만 원의 저렴한 이용료와 세기 식사 제공(무상), 장학금, 해외문화체험 등 대학생활과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다.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치 경신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4일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12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보유액 규모는 4036억 9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7억 1000만 달러 증가했다.

오늘 Lotto 제 840회차 당첨결과 (2019년 1월 5일 추첨)

2 4 11 28 29 43 + 27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10	2,042,961,788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51	66,763,458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일치
3등	2,275	1,496,676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10,586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852,019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 기한 :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역일)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